

한국 제18대 대선에서의 정치적 의사소통의 사회적 연결망:

실험, 패널조사, 데이터마이닝을 통해서 본
정치적 의사소통의 구조와 선거 국면에서의 효과

The Social Network of Political Communication in the 18th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2012:

Investigating the Structure and Electoral Impact of
Political Communication

Using Experiments, Panel Surveys, and Data Mining Methods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Center for Political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 차

1. 서론 (Introduction)	1
1.1 연구개괄 (Overview of Study)	1
1.2 연구개요 (Study at a glance)	1
2. 연구조사의 방향과 의미	2
2.1 정치적 의사소통과 투표행태의 이론적 접점 모색	2
2.2 투표행태이론의 외연 확대	3
2.3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국의 투표행태연구	4
3. 연구 설계 (Study Design)	4
3.1 모집단 (Population)	5
3.2 표집 (Sampling)	5
4. 데이터 수집과정 (Data Collection)	6
4.1 도구 (Instrument)	6
4.2 선거 전 조사(Pre-election Survey) 및 선거 후 조사(Post-election Survey)	6
4.3 참가비 (Incentive)	6
5. 데이터 파일 (Data File)	7
5.1 형태 (Format)	7
5.2 변수 (Variables)	7
6. [부록1] 설문 목록	8
7. [부록2]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제1~3차 패널조사 설문지	15
7.1 제1차 패널조사	15
7.2 제2차 패널조사	24
7.3 제3차 패널조사	35
8. [부록3] 변수 코드북	46

1. 서론 (Introduction)

1.1 연구개괄 (Overview of Study)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는 정치적 의사소통(political communication)과 투표행태(voting behavior)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지향한다. 본 연구진이 실시한 제18대 대선 온라인패널조사는 기존 선거연구의 전통을 잇는 한편 실험설문조사(survey experiment)를 시도함으로써 방법론적 발전을 꾀했다. 또한 본 설문조사는 트위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패널을 구성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메시지의 선택적 노출 여부와 그것의 정치적 의견 형성에의 영향을 탐구했으며, 정치주식시장을 운영함으로써 각 설문 응답자의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전략도 꾀했다. 본 연구진은 개인수준(individual level)과 집합수준(aggregate level)의 자료를 동시에 축적함으로써 향후 선거연구에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기획한 제18대 대선 온라인패널조사는 총 3차에 걸쳐 시행됐다. 대선 전 2회(10월 31일 ~ 11월 26일, 12월 7일 ~ 18일), 대선 후 1회(12월 20일 ~ 27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의 변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었다. 우선 데이터수집업체인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이하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12년 9월과 10월에 걸쳐 패널을 모집(recruiting)한 후 이 중에서 연구 설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약 2,300명 정도를 표집(sampling)했다. 이 중 약 1,300여 명은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한 전국 대표 패널이었고, 1,000여 명은 트위터 사용자 패널이었다. 제1~3차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사례는 총 1843명이며, 전체 최종패널유지율은 약 81.9%이다. 기타 사항은 밑의 연구개요에 정리되어 있으며 연구의 방향과 의미 및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2장~5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패널조사의 설문목록을 비교정리한 표와 실제 패널조사 설문지는 부록1과 부록2에 각각 실렸다.

1.2 연구개요 (Study at a glance)

- | | |
|-------------------------|---|
| | 한국 18대 대선에서의 정치적 의사소통의 사회적 연결망: |
| ▷ 제목 (Title) | 실험, 패널조사, 데이터마이닝을 통해서 본
정치적 의사소통의 구조와 선거 국면에서의 효과
(The Social Network of Political Communication in
Korean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vestigating the
Structure and Electoral Impact of Political
Communication Using Experiments, Panel Surveys,
and Data Mining Methods) |
| ▷ 주목적
(Main Purpose) | 18대 대선에서 정치적 의견이 정치적 의사소통의 연결망을
통해 형성되고 유통되는 양상을 탐구하고 이것이 실제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선거 전 조사(pre-election survey)와
선거 후 조사(post-election survey)를 통해 분석 |
| ▷ 모집단 (Population)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
| ▷ 표집 (Sampling) |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지향하되 트위터 사용자 패널 |

	및 무당파(Independent) 성향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패널을 추가적으로 표집 ¹⁾
▷ 설계 (Design)	2012년 9월과 10월 사이 엠브레인의 기존 패널을 활용한 유권자 일반 패널과 트위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을 별도로 표집하여 이를 대상으로 대선 전후 3차에 걸쳐 설문 진행
▷ 방식 (Mode)	온라인 패널조사 (web-based panel survey) 1차 조사 응답자 2,251명 (일반 패널 1,329명, 트위터 패널 922명),
▷ 응답자 수 (Number of cases on the file)	2차 조사 응답자는 1,921명 (일반 패널 1,144명, 트위터 패널 777명), 3차 조사 응답자는 1,843명 (일반 패널 1,100명, 트위터 패널 743명)
▷ 수행기간 (Field period)	제1차 조사: 2012년 10월 31일 ~ 11월 26일 제2차 조사: 2012년 12월 7일 ~ 18일 제3차 조사: 2012년 12월 20일 ~ 27일
▷ 최종패널유지율	일반 패널: 약 82.8% 트위터 패널: 약 80.6%
▷ 후원 및 연구단체 (Sponsors & design)	한국연구재단이 연구비 지원.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Center for Political Communication)가 연구 수행.
▷ 데이터수집업체 (Data collection firm)	마이크로밀 엠브레인 (Micromill Embrain)
▷ 외부데이터 병합가능성 (Merging Opportunity)	패널조사와 별도로 진행된 대선주식시장데이터와 트위터 노출 메시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 데이터 접근경로 (How to get the data)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예정 (http://pol.snu.ac.kr/cpc/)

2. 연구조사의 방향과 의미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는 학제 간 연구를 표방하며 현실정합성이 높은 선거연구의 이론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진이 실시한 제18대 대선 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의도로 기획되었다. 첫째,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정치적 의사소통과 투표행태의 접점을 찾는다. 둘째,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을 실제 투표행태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선

1) 연구 설계에 적합한 응답자패널을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패널의 유권자 대표성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실험군으로 모집된 트위터 사용자 집단과 무당파층인 안철수 지지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패널을 구축하는 것이 표집의 핵심 목표였다.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는 할당표집에 따라 이루어진 패널과 트위터 사용자 및 무당파층 패널을 결합하여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3장 연구 설계](#)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거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방안을 꾀한다. 셋째,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한국의 선거를 분석한다. 이로써 본 연구조사는 선거연구의 일반이론과 한국의 선거연구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1 정치적 의사소통과 투표행태의 이론적 접점 모색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확산되며 정치적 의사소통의 양상은 크게 변하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를 이용하는 개인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다. 개인이 속한 사회관계망의 밀도와 범위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어가고 있다. 이런 발전에 따라 개인이 친구,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여론지도층(opinion leader)과도 일방향 또는 쌍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일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연결망을 바탕으로 정보가 교환되고 여론(public opinion)이 형성되는 방식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정치적 의사소통방식은 투표행태연구에 새로운 접근을 요한다. 본 연구진은 정치적 의사소통, 특히 시민들 사이의 정치적 의사소통에 주목하는 콜롬비아 학파의 전통에 의거해 정치적 의사소통과 그것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과 같은 투표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탁월한 미시간 학파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형성되는 정치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하고자하는 의도에서다. 이러한 시도는 시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양상이 새로운 사회연결망의 등장으로 인해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투표행태도 달라지는지 등에 대한 블랙박스를 판독하려는 첫 걸음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제18대 대선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의사소통의 형성, 그리고 이에 따른 투표행태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대선을 전후로 총 3회에 걸쳐 패널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본 연구는 시민들이 정치적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정치지식 수준은 어떠한지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1차 설문 문12~문15, 2차 설문 문13~문16). 또한 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의사소통과 시민들 사이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비교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미디어 사용 행태에 대한 질문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1차 설문 문19~20, 2차 설문 문13, 문17).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의 활용 수준과 그 사용자들에 대한 평가(3차 설문 문17~문19)를 측정함으로써 뉴미디어가 정견의 형성과 유통 및 투표에 끼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피고자 했다. 이러한 접근은 정치적 의사소통과 투표행태의 연결지점을 포착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 있다.

2.2 투표행태이론의 외연 확대

본 연구는 학제 간 연구의 결과물인 동시에 향후 선거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것을 꾀한다. 설문자료를 설계하는 작업은 전통적인 투표행태연구를 합리적 선택이론, 네트워크 분석, 실험사회과학 등의 인접학문과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유권자들이 트위터를 통해 구축된 사회연결망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거나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보이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했다. 이는 전략적인 의사소통 과정과 이념 또는 정책에 대한 개인의 이상점(ideal point)을 정교하게 측정하려는 시도로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중위투표자(median voter)들이 선호하는 정책지향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는지 또는 다른 경쟁적인 투표결정요인에 의해 왜곡되는지 등에 관한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여지를 마련했다.

실험사회과학(social science experiment)을 접목한 것 또한 선거연구의 외연을 넓히려

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는 설문조사와 별도로 구축된 실험을 병행하기 위해 트위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했다. 실험군에게는 연구진이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의 언론사 라벨을 노출시키고, 대조군에게는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트위터 이용행태, 정치적 메시지의 수용에 있어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또한 별도의 대선주식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응답자의 정치적 예측 및 선호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설문 응답, 트위터 메시지 송수신 행태, 대선주식시장 투자행태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축된 데이터 자료는 추후에 응답자 개인(id)을 기준으로 병합(merge)할 수 있다. 개인수준의 설문조사자료와 방대한 양의 실험 자료를 연계하는 것은 이전에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인 연구방식이다. 이처럼 개인의 실제 행태와 설문에서의 자기보고(self-reporting)을 결합시킴으로써 본 연구는 설문 응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케 되는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설문 응답의 타당성(validity)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설문조사연구는 세계의 선거연구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 외에도 본 연구진의 패널조사는 실험설문조사(survey experiment)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무작위로 나뉜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기 다른 표현(wording) 또는 프레임으로 조직된 질문지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정당일체감(2차 설문 문3A, 문3B~문3B-3)과 상이한 프레임의 이슈태도(2차 설문 문19A vs. 문19B, 3차 설문 문16A vs. 문16B)를 측정하여 응답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할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작업은 방법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설문조사가 내포하는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프레임 효과 등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 개념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진이 제안한 실험설문조사가 향후 선거행태를 분석하는 새로운 지표로 활용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2.3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국의 투표행태연구

서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센터의 실험적인 연구는 한국의 선거를 비교연구의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준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연구는 지역주의를 대표적인 투표결정요인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보편적인 선거이론의 틀로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다소 한계를 보였다. 뉴미디어의 등장과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변화라는 현상을 콜롬비아 학파와 미시간 학파의 투표행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 정치적 의사소통 등에 관한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본 연구는 한국의 선거를 사례로 보편이론을 구축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 간 비교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적인 측정도구와 정교한 분석틀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선거연구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본 연구에서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호오도를 온도계(thermometer) 방식으로 측정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1차 조사 문9, 2차 조사 문4, 3차 조사 문11). 미국 선거연구에서는 개인이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온도계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 이전에 실시된 선거연구는 7점 또는 11점 척도로 이를 확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장점을 활용해 온도계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응답자들의 의향을 이전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고 동시에 외국 사례와의 비교연구를 가능케 할 수 있었다. 한편 실험의 방식으로 CSES(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방식에 따라 정당일체감을 측정함으로써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자로 대표되는 무당파의 지지후보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기초도 또한 마련했다.

선거 전후로 3차에 걸쳐 실시한 패널조사는 유권자의 후보지지 결정요인을 추적하는 데 유용하다. 횡단자료(cross-sectional data) 중 1회의 선거 후 조사(postelection survey)에만 의존할 경우 응답자가 선거결과에 따라 개인의 투표결정요인들을 실제와 다르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왜곡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가 실시한 패널조사방식은 선거 이전 조사(preelection survey)에서 투표결정요인을 측정하고 선거 후 조사에서 선거결과와 관련된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장점은 2000년대 중반부터 패널연구를 진행한 동아시아연구원(EAI)의 문제의식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특히 무당파의 지지후보 변화 등 선거 이전의 상황적인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자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3. 연구 설계 (Study Design)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총 3차에 걸친 온라인패널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는 2012년 10월 31일 ~ 11월 26일, 2차 조사는 2012년 12월 7일 ~ 18일, 3차 조사는 12월 20일 ~ 27일에 실시됐다. 1차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2,251명 중에서 2차 조사 응답자는 1,921명, 3차 조사 응답자는 1,843명이며 1~3차 패널 유지율은 약 81.9%다. 설문응답자들은 대선주식시장에 참여했으며 이 중 트위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은 트위터를 통한 메시지 노출효과를 측정하는 연구에도 응했다. 설문조사를 이와 별도로 진행된 실험연구와 연계하는 것은 응답자패널을 모집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서 기능했다.

3.1 모집단 (Population)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을 설문 연구의 모집단으로 상정했다. 다만 본 연구의 의도에 따라 두 개의 모집단을 추가적으로 상정했다. 첫째, 온라인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교환하는 유권자 집단을 대한민국 유권자의 중요한 축으로 가정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졌으며 2010년대 들어 선거철마다 그 효과의 대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과 별도로 트위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을 구성했다. 이러한 연구 설계는 트위터 이용자가 일반 유권자 전체와는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제18대 대선에서 결과를 결정지을 중요한 집단 중 하나가 무당파층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았으며 그를 지지한 많은 유권자들 역시 무당파 성향을 보인다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러한 18대 대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당파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을 추가적으로 상정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진은 기존 연구들과는 다소 다른 방식의 유권자 대표성을 고려했다.

3.2 표집 (Sampling)

본 연구는 데이터수집업체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2012년 9월과 10월에 기존 패널에 트위터 패널을 더해 대상자를 모집한 후 연구 계획에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자를 표집했다. 우선 정치적 의사소통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과 트위터 이용

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을 별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유권자 패널 1,200여 명과 트위터 이용자 패널 1,000여 명을 모집하는 것을 초기 목표로 설정했다. 최종적으로는 일반 유권자 패널 1,3000여 명, 트위터 이용자 패널 800여 명 정도가 응답자패널로 확정됐다. 또한 트위터 이용자 패널은 연구진이 제공하는 기사의 레이블이 노출되는 집단과 노출되지 않는 집단으로 나뉘었다. 이는 무작위 추출방식에 따라 2:1의 비율로 구성됐다.

무당파를 대표하는 패널을 확보하는 것은 표집 과정에서 또 다른 핵심 기준이었다. 정당 정치의 외부에서 활약한 안철수 후보가 유력 후보로 등장했으며 그를 선호하는 무당파 성향의 지지자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국내에서 무당파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을 겪으며 무당파의 지지후보가 바뀐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당파 성향의 안철수 지지자들을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비슷한 숫자로 표집하고자 의도했다. 지금까지 살핀 두 가지 기준을 제외하면 기존 한국 선거연구들이 차용한 할당표집방식에 의거해 대상을 선정했고,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설문응답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보완했다. 한국의 유권자 집단을 대표하는 동시에 실험설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모집된 응답자들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는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응답자 분포

	1차		2차		3차	
	일반패널	트위터패널	일반패널	트위터패널	일반패널	트위터패널
연령						
20-29	264 (19.9)	229 (24.8)	233 (20.4)	192 (24.7)	223 (20.3)	184 (24.8)
30-39	348 (26.2)	293 (31.8)	297 (26.0)	241 (31.0)	282 (25.6)	232 (31.2)
40-49	355 (26.7)	285 (30.9)	306 (26.8)	249 (32.1)	295 (26.8)	235 (31.6)
50-59	278 (20.9)	104 (11.3)	236 (20.6)	85 (10.9)	229 (20.8)	82 (11.0)
60-69	84 (6.3)	11 (1.2)	72 (6.3)	10 (1.3)	71 (6.5)	10 (1.4)
성별						
남	790 (59.4)	650 (70.5)	682 (59.6)	546 (70.3)	657 (59.7)	522 (70.3)
여	539 (40.6)	272 (29.5)	462 (40.4)	231 (29.7)	443 (40.3)	221 (29.7)
지역						
서울	284 (21.4)	290 (31.5)	250 (21.9)	245 (31.5)	244 (22.2)	235 (31.6)
부산	110 (8.3)	71 (7.7)	93 (8.1)	64 (8.2)	89 (8.1)	62 (8.3)
대구	72 (5.4)	51 (5.5)	65 (5.7)	45 (5.8)	62 (5.6)	44 (5.9)
인천	67 (5.0)	90 (9.8)	53 (4.6)	72 (9.3)	51 (4.6)	68 (9.2)
광주	45 (3.4)	47 (5.1)	40 (3.5)	39 (5.0)	39 (3.6)	38 (5.1)
대전	40 (3.0)	27 (2.9)	36 (3.2)	25 (3.2)	36 (3.3)	24 (3.2)
울산	28 (2.1)	13 (1.4)	24 (2.1)	10 (1.3)	23 (2.1)	10 (1.4)

경기	323 (24.3)	177 (19.2)	283 (24.7)	148 (19.1)	273 (24.9)	140 (18.9)
강원	32 (2.4)	20 (2.2)	29 (2.5)	15 (1.9)	28 (2.6)	14 (1.9)
충북	39 (2.9)	14 (1.5)	33 (2.9)	14 (1.8)	30 (2.7)	13 (1.8)
충남	38 (2.9)	19 (2.1)	32 (2.8)	16 (2.1)	31 (2.8)	14 (1.9)
전북	40 (3.0)	21 (2.3)	27 (2.4)	15 (1.9)	27 (2.5)	15 (2.0)
전남	35 (2.6)	13 (1.4)	30 (2.6)	12 (1.5)	29 (2.6)	12 (1.6)
경북	78 (5.9)	29 (3.2)	66 (5.8)	24 (3.1)	61 (5.6)	23 (3.1)
경남	85 (6.4)	34 (3.7)	73 (6.4)	28 (3.6)	68 (6.2)	27 (3.6)
제주	13 (1.0)	6 (0.7)	10 (0.9)	5 (0.6)	9 (0.8)	4 (0.5)
계	1,329	922	1,144	777	1,100	743
	2,251		1,921		1,843	

(괄호 안은 각 항목 응답자수의 해당 패널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

4. 데이터 수집과정 (Data Collection)

4.1 도구 (Instrument)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기획한 패널조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현됐다. 데이터수집업체인 엠브레인은 사전에 모집한 응답자패널에게 설문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한 이메일을 전송했다. 이메일을 받은 응답자패널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컴퓨터를 비롯해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도구를 조작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때 응답자는 윈도우 익스플로러(Window Explore), 구글 크롬(Google Chrome), 파이어 폭스(Fire Fox), 사파리(Safari) 등 웹 브라우저의 종류와 관계없이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었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았던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패널이 80% 넘게 유지될 수 있던 데 기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4.2 선거 전 조사(Pre-election Survey) 및 선거 후 조사(Post-election Survey)

패널조사는 선거 전 2회, 선거 후 1회에 걸쳐 진행됐다. 연구진은 각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해 프로그램이 적절히 구현되는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오류사항을 발견했으며 이를 수정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한편 2차 설문조사와 3차 설문조사는 실험설문조사방식을 병행했기 때문에 표집 과정에서 나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다시 하위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진행됐다. 2차 설문에서 A유형의 설문을 받았던 집단은 3차 설문에서는 B유형을, 2차 설문에서 B유형의 설문을 받았던 집단은 3차 설문에서 A유형을 제공하는 플랫폼에 접속했다. 개별 응답자가 선택한 답변은 사전에 조직한 방식에 따라 코딩됐다.

4.3 참가비 (Incentive)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게는 각 패널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계좌로 참가비를 제공했다. 개

별 응답자는 패널조사 1회에 참가한 이후 5천 원을 받았으며 3회에 걸친 패널조사에 모두 응답했을 경우 1만 5천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별도로 구축된 대선주식시장에서 활동하면서 설문에 참여할 유인을 추가로 얻었다. 대선주식시장은 각 후보의 득표율에 비례하게 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당선자에게는 1, 비당선자에게는 0의 보상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인 수익률 상위 20%에게 추가로 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해당하는 상금을 얻기 위해서는 3차에 걸친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주요 조건이었다. 요컨대 설문조사 참가자는 기본적인 참가비 외에 대선주식시장에 참여해 거래한 결과에 따라 실제 현금을 부가적으로 얻는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보상구조는 패널유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5. 데이터 파일 (Data File)

5.1 형태 (Format)

제18대 대선 패널조사의 데이터는 통계패키지인 Stata에서 조작할 수 있는 *.dta형식의 파일, SPSS에서 조작할 수 있는 *.sav형식의 파일로 제공된다. 해당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인 <http://pol.snu.ac.kr/cpc/>에 2013년 여름 게재될 예정이다. 트위터 실험 데이터 및 대선주식시장 데이터도 함께 제공될 것이다.

5.2 변수 (Variables)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의 문항은 주제에 따라 분류할 계획이다. 이는 데이터 파일이 공개되는 일정에 맞춰 추후에 진행될 것이다.

6. [부록1] 설문 목록

대분류	소분류	변수명	1차	2차	3차
응답자 성향과 투표행태	정치적 성향	선거 관심도			문1
		선거 만족도			문2
		과거투표경험	문5 문6		
		정당일체감	문8, 문8-1, 문8-2	문3A / 문3B, 문3B-1, 문3B-2, 문3B-3, 문3B-4	
		후보이념평가	문4-1, 문4-2, 문4-3	문2-1, 문2-2, 문2-3	
		정당이념평가	문4-4, 문4-4, 문4-6	문2-4, 문2-5, 문2-6	
		본인이념평가	문4-7	문2-7	문18-1
		현직대통령호오도	문9-1	문4-1	문11-1
		후보호오도	문9-2, 문9-3, 문9-4	문4-2, 문4-3, 문4-4	문11-2, 문11-3, 문11-4
		정당호오도	문9-5, 문9-6, 문9-7	문4-5, 문4-6, 문4-7	문11-5, 문11-6, 문11-7
		후보별 도덕성 평가	문11-1	문6-1	문12-1
		후보별 소통능력 평가	문11-2	문6-2	문12-2
		후보별 국정운영능력 평가	문11-3	문6-3	문12-3
		정치 효능감	문21		
		정치참여	문22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	문7				

	투표 결정 및 행태	지지후보	문1, 문1-1 문2, 문2-1 문3, 문3-1	문1, 문1-1	
		후보 지지 요인	문1-2	문1-2	
		투표여부			문3A / 문3B
		투표 소요시간			문3B-1
		선택 후보			문4
		후보 만족도			문5
		후보 선택 이유			문6
		후보 선택 시기			문7
		선택 후보 변경 여부			문8
		후보 선택 변경 이전의 지지 후보			문9-1
		선택 후보 변경 이유			문9-2
		투표 불참 이유			문10
정치적 의사소통	사회적 연결망	매체 또는 주변인 영향력	문12	문13	
		정치적 대화 순위	문13	문14	
		정치적 대화 빈도	문14-1 문15-1	문15-1 문16-1	
		정치적 대화의 주도권	문14-2 문15-2	문15-2 문16-2	
		정치적 대화에서의 의견 불일치 정도	문14-3 문15-3	문15-3 문16-3	

		대화 상대의 정치지식 수준	문14-4 문15-4	문15-4 문16-4	
		대화 상대의 선호 후보	문14-5 문15-5	문15-5 문16-5	
		대화 상대의 혐오 후보	문14-6 문15-6		
미디어		매체 이용 빈도	문19	문17	
		매체 공정성 평가	문20		
		트위터 이용 빈도			문17
		트위터 확인 빈도			문17-1
		트위터 게재 빈도			문17-2
		트위터 리트윗(RT) 빈도			문17-3
		트위터 사용자 이념 평가			문18-2
		트위터 사용자들의 당파성 평가			문19-1, 문19-2, 문19-3, 문19-4, 문19-5
		트위터 노출 기사의 정치적 편향성 평가			문22
응답자의 견해	정책에 대한 입장	의제 우선순위 - 1순위	문23-1	문18-1	
		의제 우선순위 - 2순위	문23-2	문18-2	
		의제 우선순위 - 3순위	문23-3	문18-3	
		이슈별 입장 (한미FTA)	문24-1	문19A-2 / 문19B-2	문16A-2 / 문16B-2
		이슈별 입장 (복지vs.경제)	문24-2	문19A-3 / 문19B-3	문16A-3 / 문16B-3

이슈별 입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 주체)	문24-6	문19A-4 / 문19B-4	문16A-4 / 문16B-4
이슈별 입장 (대복지원 지속)	문24-11	문19A-5 / 문19B-5	문16A-5 / 문16B-5
이슈별 입장 (원자력 발전 폐기)	문24-12	문19A-8 / 문19B-8	문16A-8 / 문16B-8
이슈별 입장 (열린 고용 지원)	문24-18	문19A-9 / 문19B-9	문16A-9 / 문16B-9
이슈별 입장 (과학지원예산 확대)	문24-19	문19A-7 / 문19B-7	문16A-7 / 문16B-7
이슈별 입장 (국회의원 정수)		문19A-1 / 문19B-1	문16A-1 / 문16B-1
이슈별 입장 (재벌 순환출자 인정)		문19A-6 / 문19B-6	문16A-6 / 문16B-6
이슈별 입장 (학교 체벌 허용)	문24-3		
이슈별 입장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문24-4		
이슈별 입장 (한미 동맹 강화)	문24-5		
이슈별 입장 (부동산 가격 안정)	문24-7		
이슈별 입장 (사형제 폐지)	문24-8		
이슈별 입장 (집회의 자유 인정)	문24-9		
이슈별 입장 (한일 동맹 약화)	문24-10		
이슈별 입장 (공권력 투입)	문24-13		

	허용)			
	이슈별 입장 (수월성 교육)	문24-14		
	이슈별 입장 (동성애자 권리 보장)	문24-15		
	이슈별 입장 (한중 협력 확대)	문24-16		
	이슈별 입장 (기업규제 완화)	문24-17		
정치 사건에 대한 입장	단일화 만족도		문7	
	단일화 (안철수 사퇴) 평가		문8	
	안철수가 야권연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수준		문9	
	단일화가 후보선택에 끼친 영향		문10	
	안철수 향후 거취		문11	
	야권단일화 종합평가 (open-ended)		문12	
	안철수의 야권연대 노력 평가			문13
	안철수의 지원활동이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문14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 사건 (TV토론)			문15-1, 문15-2, 문15-3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 사건 (후보자TV광고)			문15-8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 사건 (TV 찬조연설)			문15-9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 사건 (야권단일화)			문15-4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 사건 (선거운동-흑색선전 논란)			문15-5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 사건 (대북 이슈)			문15-6, 문15-7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 사건 (정당 과거 행적)			문15-10, 문15-11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 사건 (후보자 과거 행적)			문15-13, 문15-14	
기타	사회경제적 변수	한 달 가구소득	문16			
		주택점유형태	문17			
		학력	문18			
	연구진 평가	연구진 이념 편향성 평가				문20
		트위터 기사 선정 편향성 평가				문21

7. [부록2]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제1~3차 패널조사 설문지

7.1. 제1차 패널조사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제1차 패널조사

(2012.10.31.~11.26.)

I.

1.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 ① 박근혜 ▶ 문1-2 ② 문재인 ▶ 문1-2 ③ 안철수 ▶ 문1-2
④ 이정희 ▶ 문1-2 ⑤ 기타후보 ▶ 문1-2 ⑥ 잘 모르겠다 ▶ 문1-1
⑦ 투표하지 않겠다 ▶ 문2

1-1. 다음의 세 후보들 중 더 끌리는 후보가 있으십니까?

- ① 박근혜 ② 문재인 ③ 안철수

1-2. 무엇을 보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생각하셨나요?

- ① 후보의 소속정당 ② 후보의 능력과 경력 ③ 후보의 도덕성
④ 후보의 이념과 공약 ⑤ 후보의 당선가능성 ⑥ 출신지역
⑦ 기타

2.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만이 남아 있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 ① 박근혜 ▶ 문3 ② 문재인 ▶ 문3
③ 잘 모르겠다 ▶ 문 2-1 ④ 투표하지 않겠다 ▶ 문3

2-1. 다음의 두 후보들 중 더 끌리는 후보가 있으십니까?

- ① 박근혜 ② 문재인

3.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고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남아있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 ① 박근혜 ▶ 문4 ② 안철수 ▶ 문4
③ 잘 모르겠다 ▶ 문3-1 ④ 투표하지 않겠다 ▶ 문4

3-1. 다음의 두 후보들 중 더 끌리는 후보가 있으십니까?

- ① 박근혜 ② 안철수

7. 다음 대통령들 중에서 귀하께서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 ① 이승만 ② 박정희 ③ 전두환 ④ 노태우
 ⑤ 김영삼 ⑥ 김대중 ⑦ 노무현 ⑧ 이명박 ⑨ 없음

8. 본인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은 다음 중 어느 정당입니까?

- ① 새누리당 ▶ 문8-1 ② 민주통합당 ▶ 문8-1
 ③ 통합진보당 ▶ 문8-1 ④ 기타 ▶ 문8-1 ⑤ 없음 ▶ 문8-2

8-1. 해당 정당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함 ② 약간 좋아함 ③ 싫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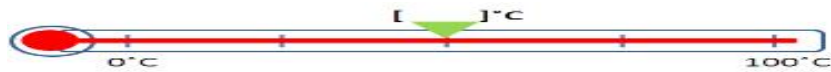
8-2. 다음 정당 중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 ① 새누리당 ② 민주통합당 ③ 통합진보당
 ④ 기타 ⑤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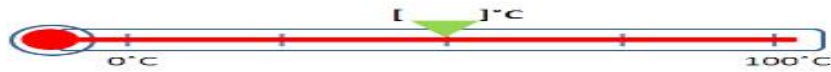
9. 귀하께서 한국의 주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점수 평가 예를 참조하여 다음 각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해당 온도계의 온도로 표시해주십시오. (녹색 화살표를 움직이면 숫자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평가	0°C	30°C	50°C	70°C	100°C
예	대단히 부정적	어느 정도 부정적	호의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음	어느 정도 호의적	대단히 호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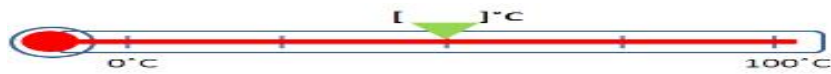
1) 이명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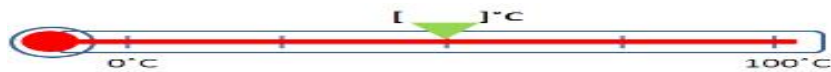
2) 박근혜



3) 문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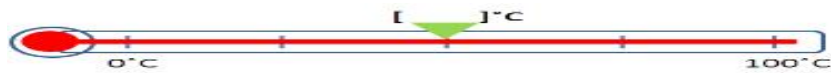
4) 안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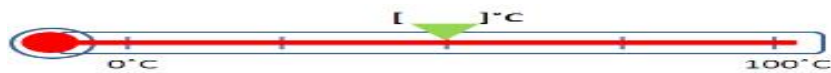
5) 새누리당



6) 민주통합당



7) 통합진보당



13. 귀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누구와 정치문제 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셨습니까? 가장 많이 대화를 한 순서에 따라 두 명의 이니셜을 적어주십시오. 아래의 [-----] 칸에 그 사람들의 이니셜을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름이 홍길동 이면 ‘ㅎㄱㄷ’ 또는 ‘ㄱㄷ.’ 대화는 대면 대화, 전화, 인터넷 채팅, 카카오톡 대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 상의 대화를 포함합니다.

1 순위[-----]

2 순위[-----]

14. 귀하가 문항 13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정치문제 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1순위로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에 답해주십시오.

이 분과는 얼마나 자주 정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시나요?	① 일주일에 3~4회 이상 ② 일주일에 1~2회 ③ 일주일에 1회 이하
이 분과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눌 때 더 말을 많이 하는 쪽은 누구 인가요?	① 나 ② 상대방 ③ 둘이 비슷함
이 분과 정치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자주 의견이 불일치하나요?	① 자주 ② 때때로 ③ 거의 없음
이 분은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② 보통 ③ 보통 이하
이 분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중 어떤 후보를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박근혜 ② 문재인 ③ 안철수
이 분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중 어떤 후보를 가장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박근혜 ② 문재인 ③ 안철수

15. 귀하가 문항 13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정치문제 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2순위로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에 답해주십시오.

이 분과는 얼마나 자주 정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시나요?	① 일주일에 3~4회 이상 ② 일주일에 1~2회 ③ 일주일에 1회 이하
이 분과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눌 때 더 말을 많이 하는 쪽은 누구 인가요?	① 나 ② 상대방 ③ 둘이 비슷함
이 분과 정치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자주 의견이 불일치하나요?	① 자주 ② 때때로 ③ 거의 없음
이 분은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② 보통 ③ 보통 이하
이 분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중 어떤 후보를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박근혜 ② 문재인 ③ 안철수

이 분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중 어떤 후보를 가장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박근혜 ② 문재인 ③ 안철수
---	----------------------

Ⅲ.

16. 귀하 닉의 한 달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나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월급, 상여금, 은행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799만원 ⑨ 800-899만원
 ⑩ 900-999만원 ⑪ 1,000만원 이상 ⑫ 잘 모름

17.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자가, 전세, 월세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 ①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
 ②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있지만 전세주택에서 거주
 ③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있지만 월세주택에서 거주
 ④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고 전세주택에서 거주
 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고 월세주택에서 거주
 ⑥ 모름

18.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나요?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학 ④ 대졸이상

Ⅳ.

19. 귀하께서는 뉴스를 얻기 위해 일주일에 다음의 매체를 평균 며칠 정도 이용하시는지요?

	1) 전혀 이용하지 않음	2) 1-2일	3) 3-4일	4) 5-6일	5) 매일
TV	1	2	3	4	5
인터넷 (포털, 언론사 사이트 포함)	1	2	3	4	5
종이신문	1	2	3	4	5
라디오	1	2	3	4	5
모바일 기기	1	2	3	4	5
소셜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	1	2	3	4	5

20. 귀하께서는 아래 제시된 매체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KBS	1	2	3	4	5	6
2) MBC	1	2	3	4	5	6
3) SBS	1	2	3	4	5	6
4) TV조선	1	2	3	4	5	6
5) 채널A	1	2	3	4	5	6
6) JTBC	1	2	3	4	5	6
7) 조선일보	1	2	3	4	5	6
8) 중앙일보	1	2	3	4	5	6
9) 동아일보	1	2	3	4	5	6
10) 한겨레신문	1	2	3	4	5	6
11) 경향신문	1	2	3	4	5	6
12) 뉴데일리	1	2	3	4	5	6
13) 오마이뉴스	1	2	3	4	5	6
14) 트위터	1	2	3	4	5	6

V.

21. 다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주기 어렵다	1	2	3	4
정치인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1	2	3	4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1	2	3	4

22. 귀하는 최근 5년 간 다음과 같은 행동에 동참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정당, 국회의원, 정부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1	2
인터넷 정치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다.	1	2
본인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기사에 댓글을 올린 적이 있다.	1	2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나 정당, 또는 단체에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1	2
정치연설, 가두시위, 기타 정치집회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1	2

VI.

23.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요한 사안들 중에서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1순위에서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경제성장	1	1	1
후보들의 역사인식	2	2	2
부패척결	3	3	3
일자리 창출	4	4	4
지역균형발전	5	5	5
복지정책	6	6	6
교육정책	7	7	7
대북정책	8	8	8
정치개혁	9	9	9
기타 (직접 기입)			

24. 다음 각 견해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도를 각각 표시해주시시오.

	전적으로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	1	2	3	4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1	2	3	4
학교에서 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	1	2	3	4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	1	2	3	4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1	2	3	4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는 개별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1	2	3	4
집값을 내리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1	2	3	4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1	2	3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1	2	3	4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경제, 군사 등에 관한 협력을 줄여야한다	1	2	3	4
남북긴장완화를 위해 대북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1	2	3	4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된다	1	2	3	4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공권력을	1	2	3	4

투입할 수 있다				
특목고를 설치하거나 우열반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1	2	3	4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	1	2	3	4
중국과 경제, 군사 등에 관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1	2	3	4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1	2	3	4
학력차별 없는 열린고용을 실천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1	2	3	4
기초과학진흥을 위한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	1	2	3	4

- ④ 진보정의당
- ⑤ 기타 정당 ()
- ⑥ 없음

[문3: TYPE B]

3B.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 중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B-1) ② 없다 (▶ 문3B-3) ③ 잘 모름 (▶ 문3B-3)

3B-1. 그렇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 ① 새누리당 ② 민주통합당 ③ 통합진보당
- ④ 진보정의당 ⑤ 기타 정당 ()

3B-2. 귀하께서는 [문3B-1. 선택정당 이름]에 대해 얼마나 가깝게 느끼십니까?

- ① 상당히 가깝게 느낀다 ② 어느 정도 가깝게 느낀다

3B-3. 그래도 다른 정당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B-4 ② 없다 ▶ 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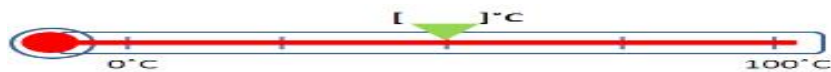
3B-4. 그렇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 ① 새누리당 ② 민주통합당 ③ 통합진보당
- ④ 진보정의당 ⑤ 기타 정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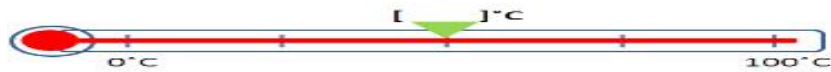
4. 귀하께서 한국의 주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점수 평가 예를 참조하여 다음 각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해당 온도계의 온도로 표시해주십시오. (녹색 화살표를 움직이면 숫자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평가 예	0°C	30°C	50°C	70°C	100°C
	대단히 부정적	어느 정도 부정적	호의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음	어느 정도 호의적	대단히 호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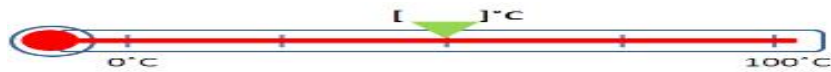
1) 이명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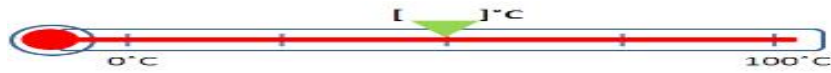
2) 박근혜



3) 문재인



4) 안철수



5) 이정희



- ② 과정상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단일화이다
- ③ 과정상의 문제가 많았고 결과적으로도 실망스러운 단일화이다
- ④ 진정한 야권 단일화로 볼 수 없다
- ⑤ 애초에 단일화에 임하지 않고 독자 출마를 했어야 한다
- ⑥ 문재인 후보 측의 정치공작에 안철수 후보가 말려든 결과였다
- ⑦ 안철수 후보의 우유부단한 행보 때문에 정권교체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 ⑧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없으며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⑨ 기타 (직접 기입)

9. 안철수 전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어느 정도만 지원하면 된다
- ③ 지원할 필요가 없다④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비판해야 한다

10.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얼마나 지원하는가에 따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귀하의 선택이 영향을 받습니까?

- ①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나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 ②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소극적으로 지원하더라도 나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 ③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여부에 관계 없이 나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 ④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여부에 관계 없이 나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 ⑤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여부에 관계 없이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11. 안철수 전 후보는 이번 대선이 끝난 후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를 그만 두어야 한다
- ② 민주당에 입당해야 한다
- ③ 민주당과 협력하여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 ④ 새누리당과 협력하여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 ⑤ 독자 정당을 만들어 다음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 ⑥ 관심 없다
- ⑦ 기타 (직접 기입)

12. 야권후보들의 단일화 과정이 이번 선거에서 귀하의 투표참여여부 및 지지후보 결정, 안철수 전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

II.

13.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귀하의 평가에 영향을 준 매체 또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일 큰 영향	두 번째로 큰 영향	세 번째로 큰 영향
신문*	1	1	1
공중파TV	2	2	2
종편 TV	3	3	3
팟캐스트	4	4	4
라디오	5	5	5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6	6	6
SNS 지인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친구 등)	7	7	7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	8	8	8
기타 (직접 기입)			

* 종이신문, 종이신문 인터넷판, 인터넷신문, 포털을 통해서 본 신문기사 포함

14. 귀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누구와 정치문제 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셨습니까? 가장 많이 대화를 한 순서에 따라 두 명의 이니셜을 적어주십시오. 아래의 [-----] 칸에 그 사람들의 이니셜을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름이 홍길동이면 ‘ㅎㄱㄷ’ 또는 ‘ㄱㄷ.’ 대화는 대면 대화, 전화, 인터넷 채팅, 카카오톡 대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 상의 대화를 포함합니다.)

1 순위[-----]

2 순위[-----]

15. 귀하가 문항 13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정치문제 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1순위로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에 답해주시오.

이 분과는 얼마나 자주 정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시나요?	① 일주일에 3~4회 이상 ② 일주일에 1~2회 ③ 일주일에 1회 이하
이 분과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눌 때 더 말을 많이 하는 쪽은 누구 인가요?	① 나 ② 상대방 ③ 둘이 비슷함

이 분과 정치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자주 의견이 불일치하나요?	① 자주 ② 때때로 ③ 거의 없음
이 분은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② 보통 ③ 보통 이하
이 분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중 어떤 후보를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박근혜 ② 문재인

16. 귀하가 문항 13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정치문제 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화** 나누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2순위로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에 답해주시시오.

이 분과는 얼마나 자주 정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시나요?	① 일주일에 3~4회 이상 ② 일주일에 1~2회 ③ 일주일에 1회 이하
이 분과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눌 때 더 말을 많이 하는 쪽은 누구 인가요?	① 나 ② 상대방 ③ 둘이 비슷함
이 분과 정치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자주 의견이 불일치하나요?	① 자주 ② 때때로 ③ 거의 없음
이 분은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② 보통 ③ 보통 이하
이 분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중 어떤 후보를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박근혜 ② 문재인

Ⅲ.

17. 귀하께서는 뉴스를 얻기 위해 일주일에 다음의 매체를 평균 며칠 정도 이용하시는지요?

	1) 전혀 이용하지 않음	2) 1-2일	3) 3-4일	4) 5-6일	5) 매일
TV	1	2	3	4	5
인터넷 (포털, 언론사 사이트 포함)	1	2	3	4	5
종이신문	1	2	3	4	5
라디오	1	2	3	4	5
모바일 기기	1	2	3	4	5
소셜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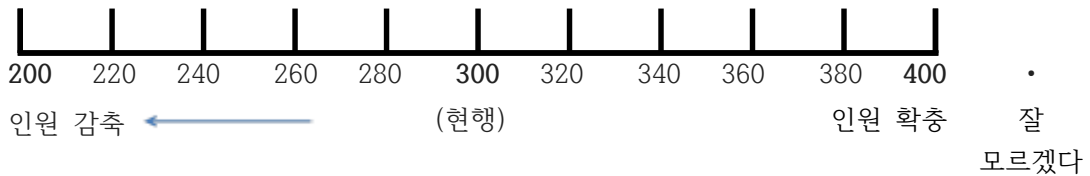
18.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요한 사안들 중에서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1순위에서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경제성장	1	1	1
후보들의 역사인식	2	2	2
부패척결	3	3	3
일자리 창출	4	4	4
지역균형발전	5	5	5
복지정책	6	6	6
교육정책	7	7	7
대북정책	8	8	8
정치개혁	9	9	9
기타 (직접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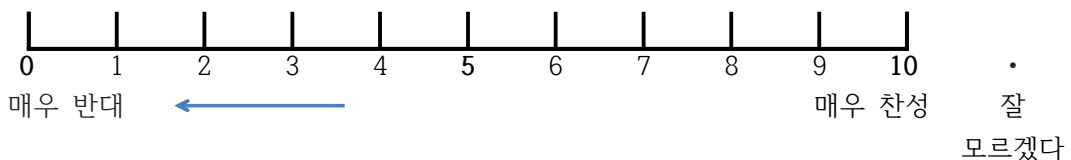
19. 다음 각 견해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표시해주시요.

[19번: TYP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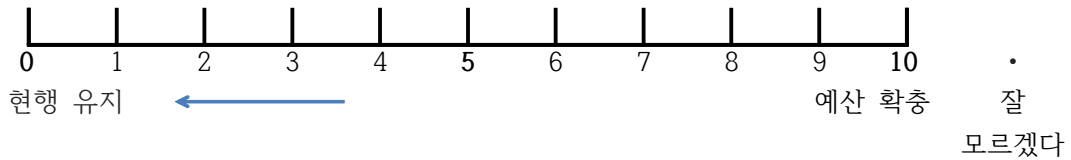
19A-1.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숫자를 비교할 경우 미국은 70만 명, 일본은 26만 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만 명 정도로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11만 명, 스웨덴은 2만 6천 명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귀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 규모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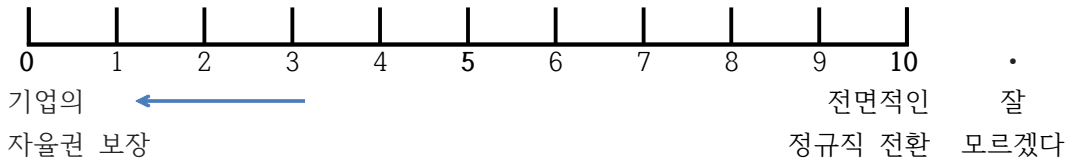
19A-2. 국가 사이의 무역을 증진하는 통상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국의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미 FTA를 전면적으로 재협상하자는 주장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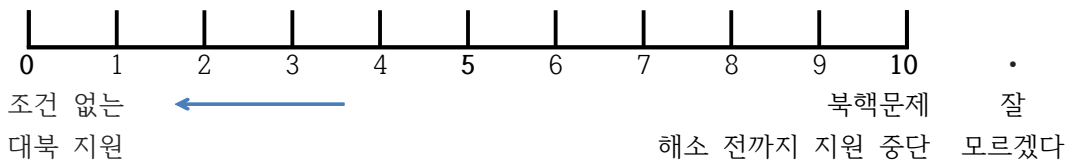
19A-3. 경제성장의 성과가 각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지출을 늘려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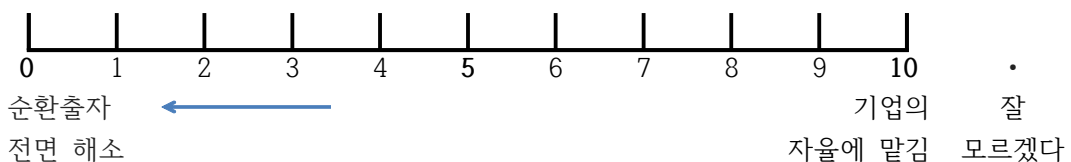
19A-4.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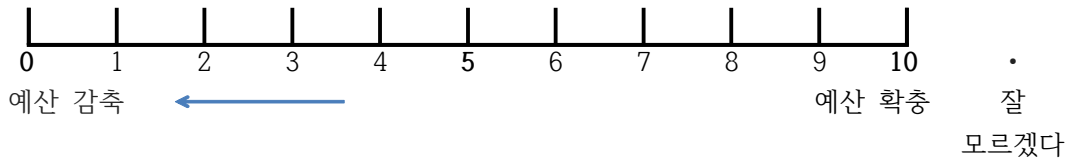
19A-5.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인도적인 관점에서 구호물자지급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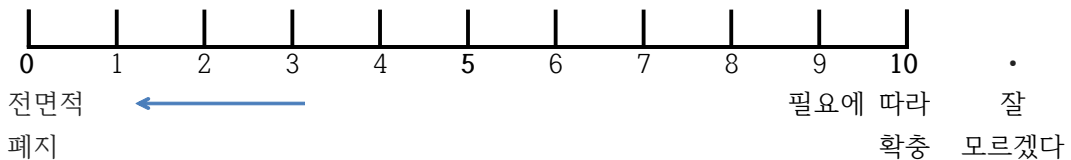
19A-6. 재벌의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는 한편 기존순환출자를 인정하고 신규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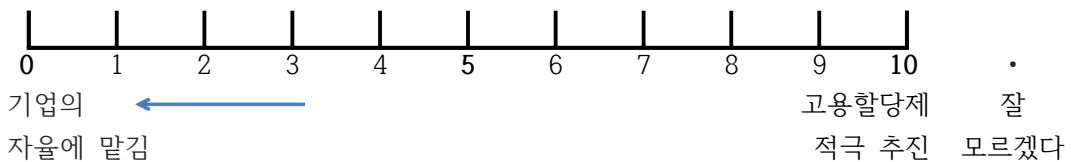
19A-7. 2012년 대한민국정부는 기초과학진흥예산으로 약 6조원을 지출했으며 2012년 한국은 국제 과학경쟁력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할 때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19A-8. 한국전력에 따르면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총 15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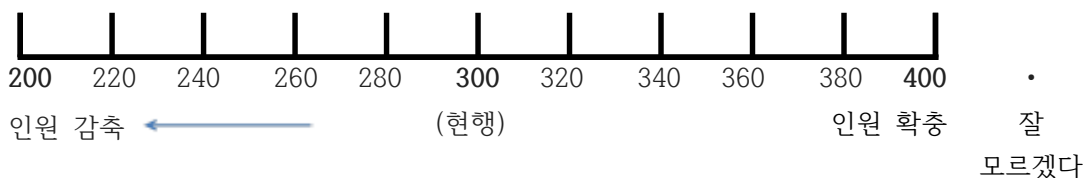


19A-9. 고졸자, 지방대 출신 등에 대한 기업의 고용차별이 청년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청년 채용 비율을 정해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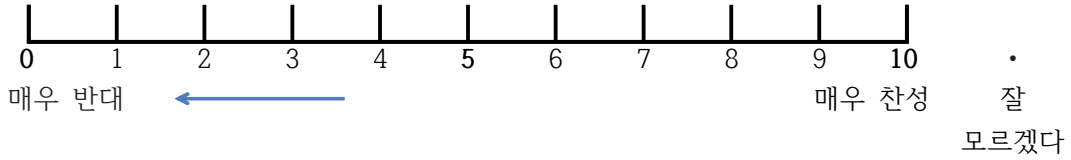


[문19: TYP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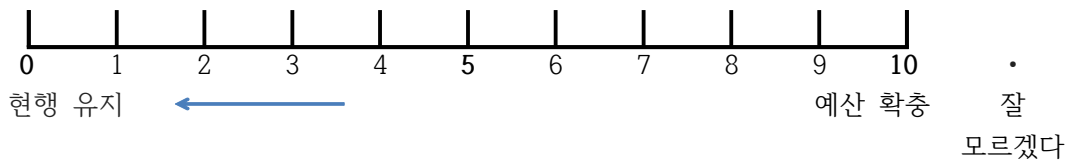
19B-1.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숫자를 비교할 경우 미국은 70만 명, 일본은 26만 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만 명 정도로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 규모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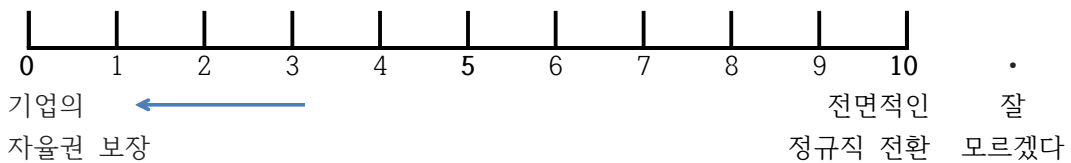
19B-2. 국가 사이의 무역을 증진하는 통상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한-미 FTA는 국내의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켜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미 FTA를 전면적으로 재협상하자는 주장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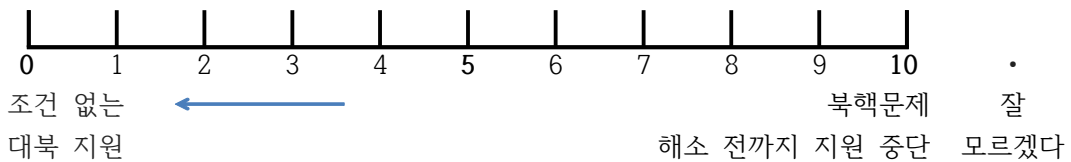
19B-3. 수년 간 세계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이므로 정부는 복지예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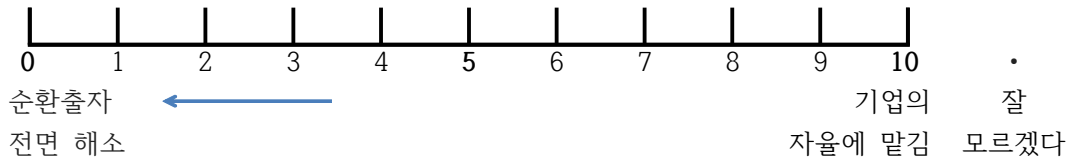
19B-4.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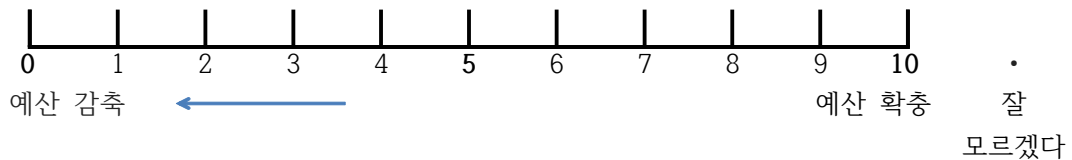
19B-5.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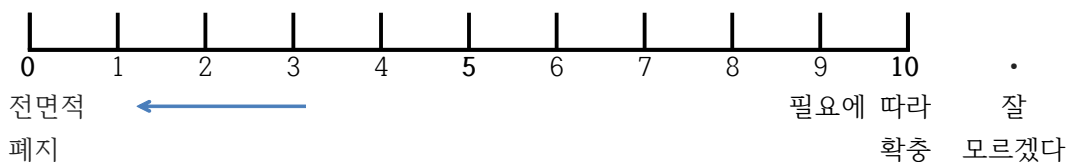
19B-6. 이번 19대 대선의 양대 후보는 향후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근혜 후보는 기존순환출자를 인정하고 신규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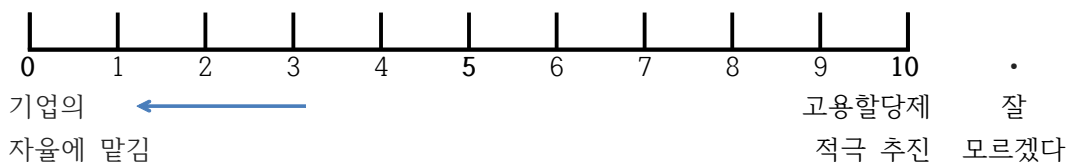
19B-7. 2012년 대한민국정부는 기초과학진흥예산으로 약 6조원을 지출했습니다. 향후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할 때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19B-8.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대체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원전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19B-9.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개인과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므로 정부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청년 채용 비율을 정해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7.3. 제3차 패널조사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제3차 패널조사
(2012.12.20.~12.27.)

I.

1.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① 매우 많았다 ② 조금 있었다
③ 별로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2.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④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3: TYPE A]

- 3A.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셨습니다?
① 투표했다 ▶ 문4
② 투표하지 않았다 ▶ 문10

[문3: TYPE B]

- 3B.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셨습니다?
① 투표하지 않았다 ▶ 문10
② 늘 투표하는 편이나 이번에는 하지 않았다 ▶ 문10
③ 투표하려고 했으나 사정상 하지 못했다 ▶ 문10
④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투표 불참으로 나의 의사를 표현했다 ▶ 문10
⑤ 투표했다 ▶ 문3B-1

3B-1. 지난 19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분 ▶ 문4

4.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① 박근혜 ② 문재인 ③ 박종선
④ 김소연 ⑤ 강지원 ⑥ 김순자

- ②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 ③ 지지하던 후보가 능력과 자질이 부족해서
- ④ 지지하던 후보의 이념과 노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⑤ 다른 정치인이 지지를 선언해서
- ⑥ 기타 (직접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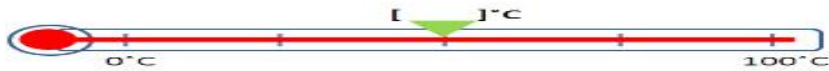
10. 선생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찍을만한 후보자가 없어서
- ②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 ③ 누구를 찍어도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어
- ④ 누가 당선되어도 마찬가지여서
- ⑤ 후보자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 ⑥ 개인사정/출근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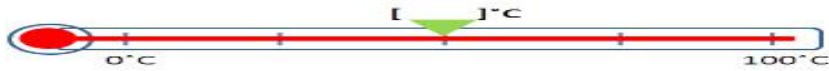
11. 귀하께서 한국의 주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점수 평가 예를 참조하여 다음 각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아래 막대의 위치로 표시해주시요. (녹색 화살표를 움직이면 숫자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평가	0°C	30°C	50°C	70°C	100°C
예	대단히 부정적	어느 정도 부정적	호의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음	어느 정도 호의적	대단히 호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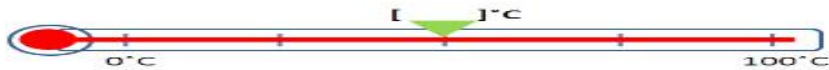
1) 이명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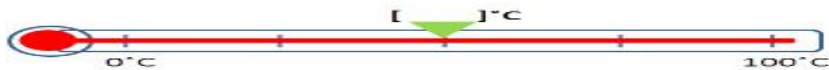
2) 박근혜



3) 문재인



4) 안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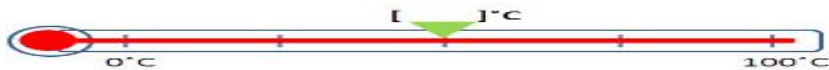
5) 이정희



6) 새누리당



7) 민주통합당



8) 통합진보당



12-1. 귀하께서는 다음의 후보들의 도덕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나쁨				보통				매우 좋음			
	0	1	2	3	4	5	6	7	8	9	10	
1) 박근혜												

민주통합당의 과거 행적	1	2	3
박근혜 후보의 과거 행적	1	2	3
문재인 후보의 과거 행적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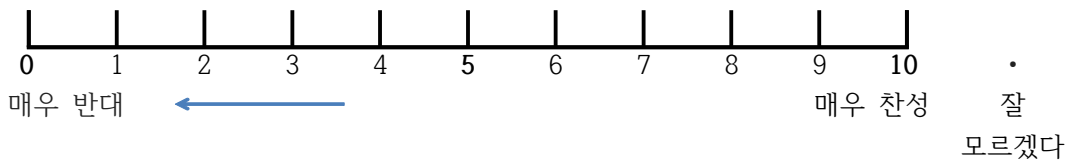
Ⅲ.

16. 다음 각 견해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표시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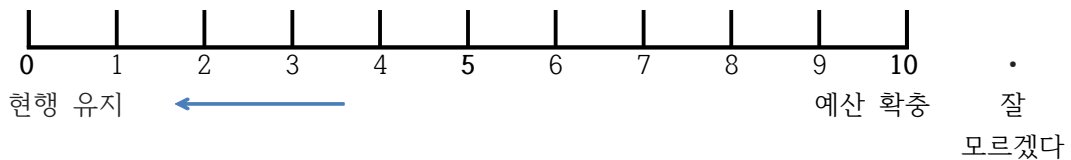
[16번: TYPE A]

16A-1.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숫자를 비교할 경우 미국은 70만 명, 일본은 26만 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만 명 정도로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11만 명, 스웨덴은 2만 6천 명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귀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 규모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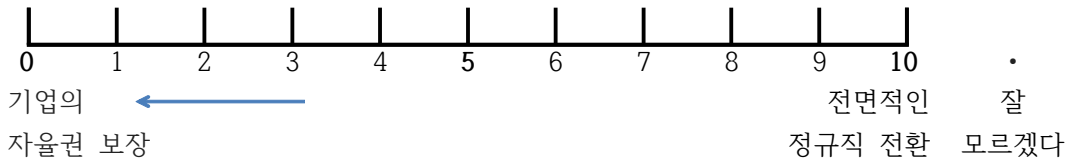
16A-2. 국가 사이의 무역을 증진하는 통상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국의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미 FTA를 전면적으로 재협상하자는 주장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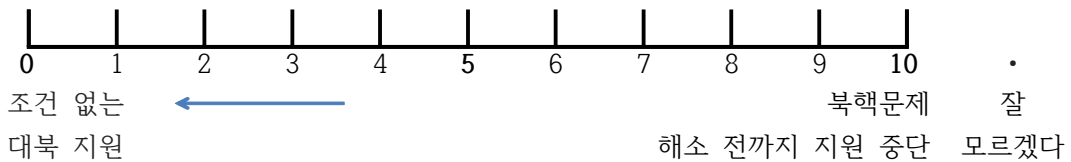
16A-3. 경제성장의 성과가 각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지출을 늘려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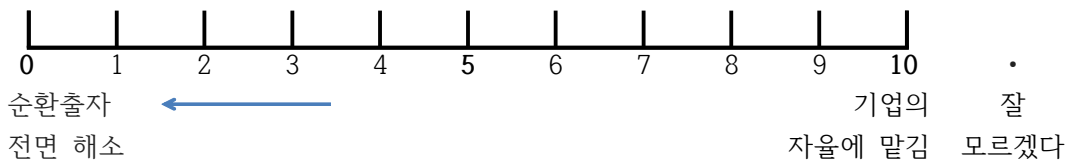
16A-4.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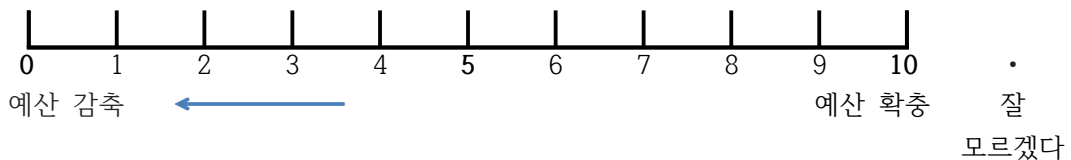
16A-5.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인도적인 관점에서 구호물자지급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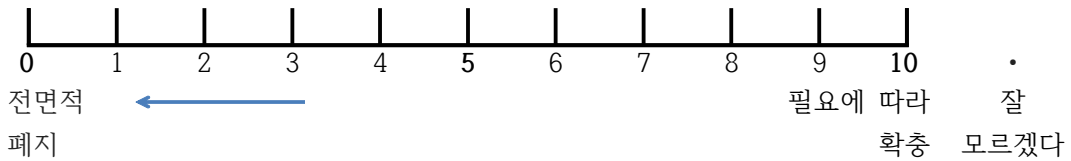
16A-6. 재벌의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는 한편 기존순환출자를 인정하고 신규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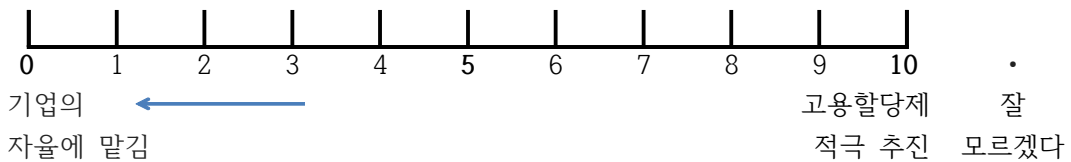
16A-7. 2012년 대한민국정부는 기초과학진흥예산으로 약 6조원을 지출했으며 2012년 한국은 국제 과학경쟁력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할 때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16A-8. 한국전력에 따르면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총 15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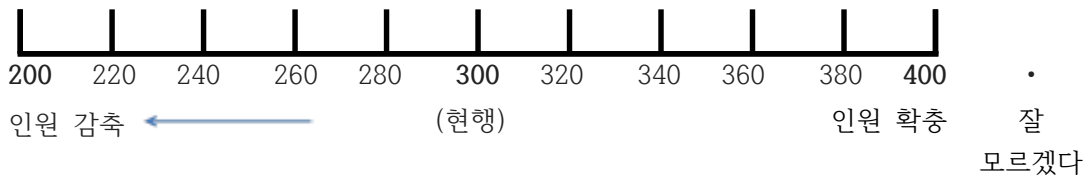


16A-9. 고졸자, 지방대 출신 등에 대한 기업의 고용차별이 청년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청년 채용 비율을 정해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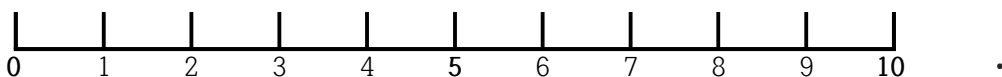


[문16: TYPE B]

16B-1.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숫자를 비교할 경우 미국은 70만 명, 일본은 26만 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만 명 정도로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 규모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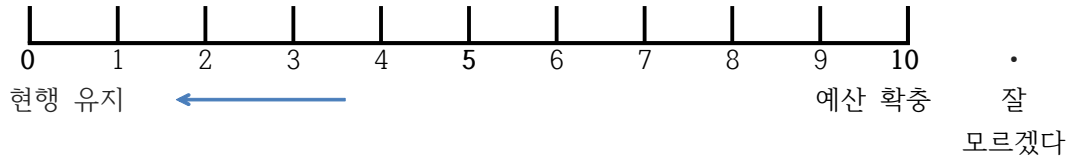
16B-2. 국가 사이의 무역을 증진하는 통상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한-미 FTA는 국내의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켜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미 FTA를 전면적으로 재협상하자는 주장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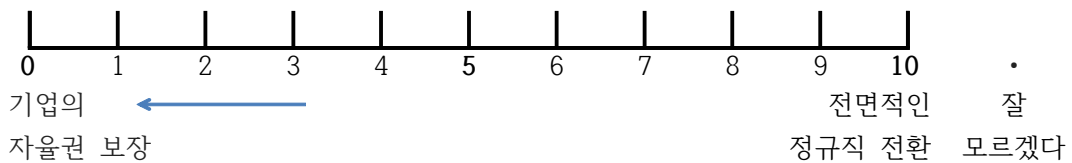
매우 반대 ←

매우 찬성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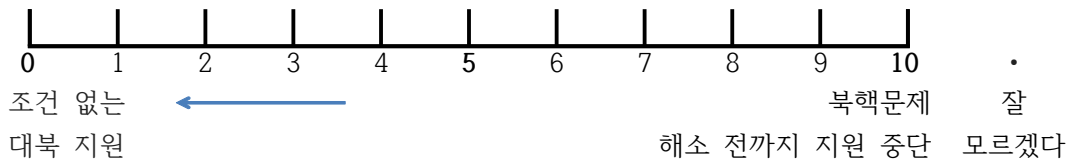
16B-3. 수년 간 세계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이므로 정부는 복지예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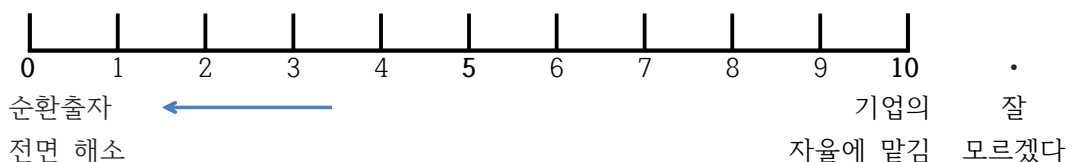
16B-4.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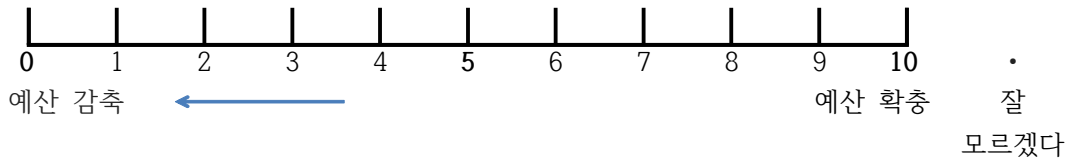
16B-5.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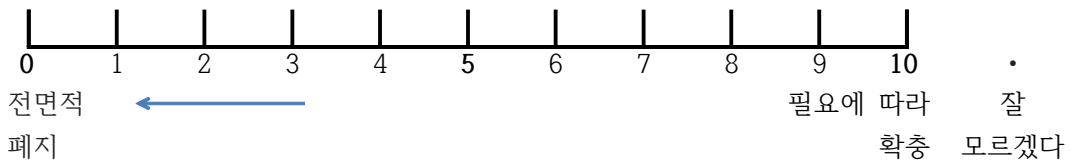
16B-6. 이번 19대 대선의 양대 후보는 향후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근혜 후보는 기존순환출자를 인정하고 신규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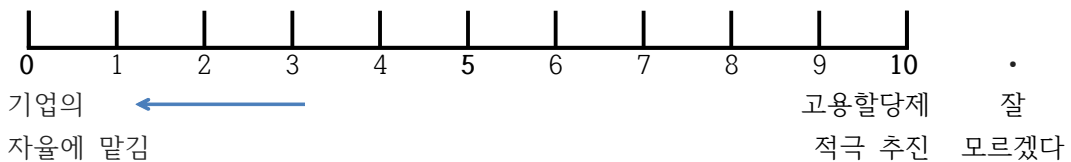
16B-7. 2012년 대한민국정부는 기초과학진흥예산으로 약 6조원을 지출했습니다. 향후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할 때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16B-8.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대체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원전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16B-9.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개인과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므로 정부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청년 채용 비율을 정해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IV.

17. 귀하께서는 평소에 트위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계정이 없다 ▶ 문18 (* 트위터 패널은 이 응답카테고리 제외)
- ② 계정은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문18-1
- ③ 가끔 사용한다 ▶ 문18-1
- ④ 자주 사용한다 ▶ 문18-1
- ⑤ 거의 매일 사용한다 ▶ 문 18-1

17-1. 귀하께서는 얼마나 자주 트윗을 확인하십니까?

-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일주일에 1-2회
- ③ 일주일에 3-4회 ④ 일주일에 5-6회

- ⑤ 매일 한 번 정도 ⑥ 매일 수시로

17-2. 귀하께서는 얼마나 많은 트윗을 게재하십니까?

-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일주일에 1-5개
- ③ 일주일에 6-10회 ④ 일주일에 10-20회
- ⑤ 일주일에 20개 이상

17-3. 귀하께서는 얼마나 많은 리트윗을 하십니까?

-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일주일에 1-5개
- ③ 일주일에 6-10회 ④ 일주일에 10-20회
- ⑤ 일주일에 20개 이상

18. 정치에서 사람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를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귀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은 매우 진보를 나타내며, 10은 매우 보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평균적으로 보아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념성향이 어느 정도 진보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보] ← [중도] → [보수]										
	0	1	2	3	4	5	6	7	8	9	10
본인	0	1	2	3	4	5	6	7	8	9	10
트위터 이용자	0	1	2	3	4	5	6	7	8	9	10

19. 귀하께서는 평균적으로 보아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다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0% 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90% 이상
1) 민주통합당	0	1	2	3	4	5	6	7	8
2) 새누리당	0	1	2	3	4	5	6	7	8
3) 통합진보당	0	1	2	3	4	5	6	7	8
4) 기타정당	0	1	2	3	4	5	6	7	8
5) 무당파 (지지정당이 없는 사용자)	0	1	2	3	4	5	6	7	8

20. 귀하께서는 본 연구를 진행한“서울대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연구진이 정치적으로 진보 또는 보수적인 편향성이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 ① 매우 진보 편향적 ② 약간 진보 편향적
- ③ 중립적 ④ 약간 보수 편향적
- ⑤ 매우 보수 편향적

※트위터 패널 추가 질문

21. 귀하께서는 지난 4주 동안 매일 서울대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보내 드린 대선관련 뉴스를 트위터를 통해 받아 보셨습니다. 서울대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의 기사선정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 | | |
|-------------|-------------|
| ① 매우 진보 편향적 | ② 약간 진보 편향적 |
| ③ 중립적 | ④ 약간 보수 편향적 |
| ⑤ 매우 보수 편향적 | |

22. 귀하께서는 받아 보신 언론사의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 | | |
|-------------|--------------------|
| ① 매우 진보 편향적 | ② 약간 진보 편향적 |
| ③ 중립적 | ④ 약간 보수 편향적 |
| ⑤ 매우 보수 편향적 | ⑥ 언론사마다 달라 말하기 어렵다 |

[부록 3] 변수(Variables)

Variable	Obs	Mean	Min	Max	Label
No	2251	.	14	2269	번호
Login_ID	2251	.	.	.	로그인 아이디(이메일 주소)
EM_ID	2252	.	.	.	엠브레인 아이디
age	2251	39.2	20	69	연령
gender	2251	1.4	1	2	성별
region	2251	.	1	16	거주지
region_1	2251	.	1	31	세부 거주지
vote	2251	.	1	6	리쿠르팅 투표예정
rate	2251	.	.	.	진보/중도/보수
flag	2251	.	1	3	일반패널/트위터1/트위터2
Start_time	2251	.	.	.	조사 시작시간
End_time	2251	.	.	.	조사 완료시간
Q1	2251	.	1	7	1.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투표할 후보
Q1_1	285	.	1	3	1-1. 박/문/안 중 선호하는 후보
Q1_2	2236	.	1	7	1-2. 투표 근거
Q2	2251	.	1	4	2. 박근혜 VS 문재인
Q2_1	123	.	1	2	2-1. 박근혜 VS 문재인
Q3	2251	.	1	4	3. 박근혜 VS 안철수
Q3_1	143	.	1	2	3-1. 박근혜 VS 안철수
Q4_1	2251	7.8	0	11	4. 박근혜 후보 이념평가
Q4_2	2251	3.6	0	10	4. 문재인 후보 이념평가
Q4_3	2251	3.4	0	10	4. 안철수 후보 이념평가
Q4_4	2251	8.0	0	11	4. 새누리당 이념평가
Q4_5	2251	4.0	0	10	4. 민주통합당 이념평가
Q4_6	2251	2.9	0	10	4. 통합진보당 이념평가
Q4_7	2251	4.6	0	10	4. 본인 이념평가
Q5	2251	.	1	10	5. 19대 총선 투표여부

Q6	2251	.	1	8	6. 17대 대선 투표여부
Q7	2251	.	1	9	7.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Q8	2251	.	1	5	8.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
Q8_1	1472	.	1	3	8-1. 해당 정당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십니까?
Q8_1_1	779	.	1	5	8-1-1. 다음 정당 중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Q9_1	2251	26.7	0	100	9. 이명박 호감도
Q9_2	2251	39.7	0	100	9. 박근혜 호감도
Q9_3	2251	56.3	0	100	9. 문재인 호감도
Q9_4	2251	61.8	0	100	9. 안철수 호감도
Q9_5	2251	32.0	0	100	9. 새누리당 호감도
Q9_6	2251	45.0	0	100	9. 민주통합당 호감도
Q9_7	2251	34.1	0	100	9. 통합진보당 호감도
Q10	2251	.	1	5	10. 이번 대선 투표의사 여부
Q11_1_1	2251	4.5	0	11	11. 박근혜 도덕성 평가
Q11_1_2	2251	6.4	0	11	11. 문재인 도덕성 평가
Q11_1_3	2251	6.6	0	11	11. 안철수 도덕성 평가
Q11_2_1	2251	4.1	0	11	11. 박근혜 소통능력 평가
Q11_2_2	2251	6.3	0	11	11. 문재인 소통능력 평가
Q11_2_3	2251	6.9	0	11	11. 안철수 소통능력 평가
Q11_3_1	2251	5.1	0	11	11. 박근혜 국정운영능력 평가
Q11_3_2	2251	6.1	0	10	11. 문재인 국정운영능력 평가
Q11_3_3	2251	5.3	0	10	11. 안철수 국정운영능력 평가
Q12_1	2251	.	1	7	12. 이번 대선에서 영향 받은 매체/사람(1순위)
Q12_2	2251	.	1	7	12. 이번 대선에서 영향 받은 매체/사람(2순위)
Q12_3	2251	.	1	7	12. 이번 대선에서 영향 받은 매체/사람(3순위)
Q12_OP	173	.	.	.	12. 이번 대선에서 영향 받은 매체/사람(직접기입)
Q13_1	2251	.	.	.	13. 정치대화 상대방(1순위)
Q13_2	2251	.	.	.	13. 정치대화 상대방(2순위)
Q14_1	2251	.	1	3	14. [1순위] 1. 정치대화빈도
Q14_2	2251	.	1	3	14. [1순위] 2. 말을 더 많이 하는 쪽

Q14_3	2251	.	1	3	14. [1순위] 3. 의견불일치 빈도
Q14_4	2251	.	1	3	14. [1순위] 4. 상대방의 정치적 지식
Q14_5	2251	.	1	3	14. [1순위] 5. 상대방의 선호 후보
Q14_6	2251	.	1	3	14. [1순위] 6. 상대방의 혐오 후보
Q15_1	2251	.	1	3	14. [2순위] 1. 정치대화빈도
Q15_2	2251	.	1	3	14. [2순위] 2. 말을 더 많이 하는 쪽
Q15_3	2251	.	1	3	14. [2순위] 3. 의견불일치 빈도
Q15_4	2251	.	1	3	14. [2순위] 4. 상대방의 정치적 지식
Q15_5	2251	.	1	3	14. [2순위] 5. 상대방의 선호 후보
Q15_6	2251	.	1	3	14. [2순위] 6. 상대방의 혐오 후보
Q16	2251	5.1	1	12	16. 한 달 가구소득
Q17	2251	.	1	6	17. 자가, 전세, 월세
Q18	2251	.	1	4	18. 최종학력
Q19_1	2251	4.0	1	5	19. 미디어이용빈도: TV
Q19_2	2251	4.5	1	5	19. 미디어이용빈도: 인터넷
Q19_3	2251	2.5	1	5	19. 미디어이용빈도: 종이신문
Q19_4	2251	2.2	1	5	19. 미디어이용빈도: 라디오
Q19_5	2251	3.5	1	5	19. 미디어이용빈도: 모바일 기기
Q19_6	2251	3.0	1	5	19. 미디어이용빈도: 소셜미디어
Q20_1	2251	3.2	1	6	20. 매체 공정성 평가: KBS
Q20_2	2251	2.6	1	6	20. 매체 공정성 평가: MBC
Q20_3	2251	3.3	1	6	20. 매체 공정성 평가: SBS
Q20_4	2251	2.5	1	6	20. 매체 공정성 평가: TV조선
Q20_5	2251	2.7	1	6	20. 매체 공정성 평가: 채널A
Q20_6	2251	2.7	1	6	20. 매체 공정성 평가: JTBC
Q20_7	2251	2.3	1	6	20. 매체 공정성 평가: 조선일보
Q20_8	2251	2.4	1	6	20. 매체 공정성 평가: 중앙일보
Q20_9	2251	2.4	1	6	20. 매체 공정성 평가: 동아일보
Q20_10	2251	3.2	1	6	20. 매체 공정성 평가: 한겨레신문
Q20_11	2251	3.2	1	6	20. 매체 공정성 평가: 경향신문

Q20_12	2251	2.8	1	6	20. 매체 공정성 평가: 뉴데일리
Q20_13	2251	3.1	1	6	20. 매체 공정성 평가: 오마이뉴스
Q20_14	2251	3.3	1	6	20. 매체 공정성 평가: 트위터
Q21_1	2251	2.7	1	4	21. 동의정도: 정부에의 본인 영향력
Q21_2	2251	3.3	1	4	21. 동의정도_정치인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Q21_3	2251	2.8	1	4	21. 동의정도_한국의 당면 정치문제 이해 정도
Q22_1	2251	1.8	1	2	22. 행동: 정부기관 의견전달
Q22_2	2251	1.8	1	2	22. 행동: 인터넷 정치토론참여
Q22_3	2251	1.6	1	2	22. 행동: 언론기사 댓글
Q22_4	2251	1.8	1	2	22. 행동: 정치 기부/봉사활동
Q22_5	2251	1.8	1	2	22. 정치연설, 가두시위, 기타 정치집회
Q23_1	2251	.	1	10	23. 대선 주요 사안(1순위)
Q23_2	2251	.	1	10	23. 대선 주요 사안(2순위)
Q23_3	2251	.	1	10	23. 대선 주요 사안(3순위)
Q23_4	44	.	.	.	23. 대선 주요 사안(직접기입)
Q24_1	2251	2.8	1	4	24. 의견 찬반: 한미 FTA
Q24_2	2251	2.6	1	4	24. 의견 찬반: 복지보다 경제성장
Q24_3	2251	2.9	1	4	24. 의견 찬반: 체벌 허용
Q24_4	2251	2.3	1	4	24. 의견 찬반: 양심적 병역거부
Q24_5	2251	2.8	1	4	24. 의견 찬반: 한미동맹 강화
Q24_6	2251	2.0	1	4	24. 의견 찬반: 비정규직 기업 자율
Q24_7	2251	3.1	1	4	24. 의견 찬반: 집값 인하 정책 강화
Q24_8	2251	1.9	1	4	24. 의견 찬반: 사형제 폐지
Q24_9	2251	2.9	1	4	24. 의견 찬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Q24_10	2251	2.9	1	4	24. 의견 찬반: 일본과 협력 감소
Q24_11	2251	2.5	1	4	24. 의견 찬반: 대북지원 계속
Q24_12	2251	2.6	1	4	24. 의견 찬반: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Q24_13	2251	2.2	1	4	24. 의견 찬반: 노사분규 해결 위해 공권력 투입
Q24_14	2251	2.1	1	4	24. 의견 찬반: 특목고 설치
Q24_15	2251	2.5	1	4	24. 의견 찬반: 동성애자 권리 인정

Q24_16	2251	2.9	1	4	24. 중국과 협력 확대
Q24_17	2251	2.5	1	4	24. 기업규제 완화
Q24_18	2251	3.2	1	4	24. 열린고용 지원
Q24_19	2251	3.2	1	4	24.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w2_no	1921	.	5	1925	번호
w2_start_time	1921	.	.	.	조사 시작시간
w2_end_time	1921	.	.	.	조사 완료시간
w2_Login_ID	1921	.	.	.	로그인 아이디(이메일 주소)
w2_pw	1921	.	.	.	로그인 패스워드
w2_age	1921	39.1	20	69	연령
w2_gender	1921	1.4	1	2	성별
w2_region	1921	.	1	16	거주지
w2_region_1	1921	.	1	31	세부 거주지
w2_vote	1921	.	1	6	리쿠르팅 투표예정
w2_rate	1921	.	1	3	진보/중도/보수
w2_flag	1921	.	1	2	일반패널/트위터1/트위터2
w2_Type	1921	.	1	2	1) Type A, 2) Type B
w2_Q1	1921	.	1	6	1.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투표할 후보
w2_Q1_1	157	.	1	2	1-1. 박/문 중 선호하는 후보
w2_Q1_2	1903	.	1	7	1-2. 투표 근거
w2_Q2_1	1921	7.8	0	10	2. 박근혜 후보 이념 평가
w2_Q2_2	1921	3.6	0	10	2. 문재인 후보 이념 평가
w2_Q2_3	1921	2.0	0	10	2. 이정희 후보 이념 평가
w2_Q2_4	1921	8.0	0	10	2. 새누리당 이념 평가
w2_Q2_5	1921	3.9	0	10	2. 민주통합당 이념 평가
w2_Q2_6	1921	2.2	0	10	2. 통합진보당 이념 평가
w2_Q2_7	1921	4.7	0	10	2. 본인 이념 평가
w2_QA3	948	.	1	6	3.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 - A형
w2_QA3_OP	5	.	.	.	3.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기타:직접기입) - A형
w2_QB3	973	.	1	3	3. 가깝게 느끼는 정당 유무 - B형

w2_QB3_1	382	.	1	5	3-1.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 - B형
w2_QB3_1_OP	7	.	.	.	3-1.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기타:직접기입) - B형
w2_QB3_2	382	.	1	2	3-2. 가깝게 느끼는 정도 - B형
w2_QB3_3	591	.	1	2	3-3.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없을 때 -> 그나마 가깝게 느끼는 정당 유무 - B형
w2_QB3_4	291	.	1	5	3-4. 그나마 가깝게 느끼는 정당 - B형
w2_QB3_4_OP	6	.	.	.	3-4. 그나마 가깝게 느끼는 정당(기타:직접기입) - B형
w2_Q4_1	1921	25.6	0	100	4. 이명박 호감도
w2_Q4_2	1921	40.2	0	100	4. 박근혜 호감도
w2_Q4_3	1921	56.6	0	100	4. 문재인 호감도
w2_Q4_4	1921	60.2	0	100	4. 안철수 호감도
w2_Q4_5	1921	30.4	0	100	4. 이정희 호감도
w2_Q4_6	1921	32.5	0	100	4. 새누리당 호감도
w2_Q4_7	1921	45.4	0	100	4. 민주통합당 호감도
w2_Q4_8	1921	31.0	0	100	4. 통합진보당 호감도
w2_Q5	1921	.	1	5	5. 투표참여의사
w2_Q6_1	1921	4.4	0	10	6. 박근혜 도덕성 평가
w2_Q6_2	1921	6.3	0	10	6. 문재인 도덕성 평가
w2_Q6_3	1921	4.0	0	10	6. 박근혜 소통능력 평가
w2_Q6_4	1921	6.4	0	10	6. 문재인 소통능력 평가
w2_Q6_5	1921	4.8	0	10	6. 박근혜 국정운영능력 평가
w2_Q6_6	1921	5.9	0	10	6. 문재인 국정운영능력 평가
w2_Q7	1921	4.5	0	10	7. 야권단일화 과정 만족도
w2_Q8_1	1921	.	1	2	8. 안철수 후보의 사퇴에 대한 평가 : 선의의 경쟁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야권단일화이다
w2_Q8_2	1921	.	1	2	8. 안철수 후보의 사퇴에 대한 평가 : 과정상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단일화이다
w2_Q8_3	1921	.	1	2	8. 안철수 후보의 사퇴에 대한 평가 : 과정상의 문제가 많았고 결과적으로도 실망스러운 단일화이다
w2_Q8_4	1921	.	1	2	8. 안철수 후보의 사퇴에 대한 평가 : 진정한 야권 단일화로 볼 수 없다
w2_Q8_5	1921	.	1	2	8. 안철수 후보의 사퇴에 대한 평가 : 애초에 단일화에 임하지 않고 독자 출마를 했어야 한다
w2_Q8_6	1921	.	1	2	8. 안철수 후보의 사퇴에 대한 평가 : 문재인 후보 측의 정치공작에 안철수 후보가 말려든 결과였다
w2_Q8_7	1921	.	1	2	8. 안철수 후보의 사퇴에 대한 평가 : 안철수 후보의 우유부단한 행보 때문에 정권교체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w2_Q8_8	1921	.	1	2	8. 안철수 후보의 사퇴에 대한 평가 :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없으며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w2_Q9	1921	.	1	4	9. 적절한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 지지 정도
w2_Q10	1921	.	1	5	10.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 지지 정도가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
w2_Q11	1921	.	1	7	11. 안철수 전 후보의 대선 후 바람직한 행보
w2_Q11_OP	45	.	.	.	11. 안철수 전 후보의 대선 후 바람직한 행보(기타:직접기입)
w2_Q12	1921	.	.	.	12. 야권후보들의 단일화 과정이 미친 투표결정에 영향(직접기입)
w2_Q13_1	1921	.	1	9	13. 이번 대선에서 영향 받은 매체/사람(1순위)
w2_Q13_2	1921	.	1	9	13. 이번 대선에서 영향 받은 매체/사람(2순위)
w2_Q13_3	1921	.	1	9	13. 이번 대선에서 영향 받은 매체/사람(3순위)
w2_Q13_OP	129	.	.	.	13. 이번 대선에서 영향 받은 매체/사람(직접기입)
w2_Q14_1	1921	.	.	.	14. 정치대화 상대방(1순위)
w2_Q14_2	1921	.	.	.	14. 정치대화 상대방(2순위)
w2_Q15_1	1921	.	1	3	15. [1순위] 1. 정치대화빈도
w2_Q15_2	1921	.	1	3	15. [1순위] 2. 말을 더 많이 하는 쪽
w2_Q15_3	1921	.	1	3	15. [1순위] 3. 의견불일치 빈도
w2_Q15_4	1921	.	1	3	15. [1순위] 4. 상대방의 정치적 지식
w2_Q15_5	1921	.	1	2	15. [1순위] 5. 상대방의 선호 후보
w2_Q16_1	1921	.	1	3	16. [2순위] 1. 정치대화빈도
w2_Q16_2	1921	.	1	3	16. [2순위] 2. 말을 더 많이 하는 쪽
w2_Q16_3	1921	.	1	3	16. [2순위] 3. 의견불일치 빈도
w2_Q16_4	1921	.	1	3	16. [2순위] 4. 상대방의 정치적 지식
w2_Q16_5	1921	.	1	2	16. [2순위] 5. 상대방의 선호 후보
w2_Q17_1	1921	.	1	5	17. 미디어이용빈도: TV
w2_Q17_2	1921	.	1	5	17. 미디어이용빈도: 인터넷
w2_Q17_3	1921	.	1	5	17. 미디어이용빈도: 종이신문
w2_Q17_4	1921	.	1	5	17. 미디어이용빈도: 라디오
w2_Q17_5	1921	.	1	5	17. 미디어이용빈도: 모바일 기기
w2_Q17_6	1921	.	1	5	17. 미디어이용빈도: 소셜미디어
w2_Q18_1	1921	.	1	10	18. 대선 주요 사안(1순위)
w2_Q18_2	1921	.	1	10	18. 대선 주요 사안(2순위)
w2_Q18_3	1921	.	1	10	18. 대선 주요 사안(3순위)

w2_Q18_4	25	.	.	.	18. 대선 주요 사안(직접기입)
w2_QA19_1	948	235.4	99	400	19-1. 의견찬반(국회의원정수) - A형
w2_QA19_2	948	10.7	0	99	19-2. 의견찬반(한미FTA) - A형
w2_QA19_3	948	8.6	0	99	19-3. 의견찬반(복지예산규모) - A형
w2_QA19_4	948	8.4	0	99	19-4. 의견찬반(비정규직 정규직전환) - A형
w2_QA19_5	948	8.1	0	99	19-5. 의견찬반(대북지원) - A형
w2_QA19_6	948	13.4	0	99	19-6. 의견찬반(재벌 순환출자 규제) - A형
w2_QA19_7	948	8.6	0	99	19-7. 의견찬반(기초과학진흥예산 규모) - A형
w2_QA19_8	948	9.0	0	99	19-8. 의견찬반(원자력 발전소 규모) - A형
w2_QA19_9	948	8.5	0	99	19-9. 의견찬반(청년고용할당제) - A형
w2_QB19_1	973	227.1	99	400	19-1. 의견찬반(국회의원정수) - B형
w2_QB19_2	973	10.5	0	99	19-2. 의견찬반(한미FTA) - B형
w2_QB19_3	973	8.0	0	99	19-3. 의견찬반(복지예산규모) - B형
w2_QB19_4	973	8.0	0	99	19-4. 의견찬반(비정규직 정규직전환) - B형
w2_QB19_5	973	8.5	0	99	19-5. 의견찬반(대북지원) - B형
w2_QB19_6	973	12.2	0	99	19-6. 의견찬반(재벌 순환출자 규제) - B형
w2_QB19_7	973	9.5	0	99	19-7. 의견찬반(기초과학진흥예산 규모) - B형
w2_QB19_8	973	8.3	0	99	19-8. 의견찬반(원자력 발전소 규모) - B형
w2_QB19_9	973	8.5	0	99	19-9. 의견찬반(청년고용할당제) - B형
_merge12	2252	.	1	3	
w3_no	1843	.	1	1850	번호
w3_start_t~e	1843	.	.	.	조사 시작 시간
w3_end_time	1843	.	.	.	조사 완료 시간
w3_Login_ID	1843	.	.	.	로그인 아이디
w3_age	1843	39.2	20	69	연령
w3_gender	1843	1.4	1	2	성별
w3_region	1843	.	.	.	거주지
w3_region_1	1843	.	.	.	세부거주지
w3_vote	1843	.	1	6	리쿠르팅 투표예정
w3_rate	1843	.	1	3	진보/중도/보수

w3_flag	1843	.	1	3	일반패널/트위터1/트위터2
w3_type	1843	.	1	2	T1.타입 유형
w3_Q1	1843	.	1	4	1. 선거관심도
w3_Q2	1843	.	1	4	2. 선거 결과 만족도
w3_QA3	930	.	1	2	3. 투표 참여 여부 - A형
w3_QB3	913	.	1	5	3. 투표 참여 여부 - B형
w3_QB3_1	849	.	1	180	3. 투표 소요 시간 - B형
w3_Q4	1753	.	1	6	4. 투표한 후보
w3_Q5	1753	.	1	4	5. 투표한 후보에 대한 만족도
w3_Q6	1753	.	1	3	6. 투표 근거
w3_Q7	1753	.	1	10	7. 투표 결정 시기
w3_Q8	1753	.	1	2	8. 지지 후보 변경 여부
w3_Q9_1	650	.	1	4	9-1. 초기 지지 후보
w3_Q9_2	650	.	1	6	9-2. 지지 후보 변경 이유
w3_Q9_2_OP	16	.	.	.	9-2. 지지 후보 변경 이유(기타:직접기입)
w3_Q10	90	.	1	6	10. 투표 불참 이유
w3_Q11_1	1843	26.1	0	100	11-1. 이명박 호감도
w3_Q11_2	1843	43.4	0	100	11-2. 박근혜 호감도
w3_Q11_3	1843	56.3	0	100	11-3. 문재인 호감도
w3_Q11_4	1843	58.5	0	100	11-4. 안철수 호감도
w3_Q11_5	1843	28.5	0	100	11-5. 이정희 호감도
w3_Q11_6	1843	33.1	0	100	11-6. 새누리당 호감도
w3_Q11_7	1843	42.6	0	100	11-7. 민주통합당 호감도
w3_Q11_8	1843	29.1	0	100	11-8. 통합진보당 호감도
w3_Q12_1_1	1843	4.9	0	10	12-1-1. 박근혜 도덕성 평가
w3_Q12_1_2	1843	6.6	0	10	12-1-2. 문재인 도덕성 평가
w3_Q12_2_1	1843	4.5	0	10	12-2-1. 박근혜 소통능력 평가
w3_Q12_2_2	1843	6.7	0	10	12-2-2. 문재인 소통능력 평가
w3_Q12_3_1	1843	5.3	0	10	12-3-1. 박근혜 국정운영능력 평가
w3_Q12_3_2	1843	6.1	0	10	12-3-2. 문재인 국정운영능력 평가

w3_Q13	1843	.	1	4	13.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원 정도 평가
w3_Q14	1843	.	1	3	14.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원이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
w3_Q15_1	1843	2.1	1	3	15-1. 각 사건이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박근혜 후보의 TV 토론)
w3_Q15_2	1843	2.1	1	3	15-2. 각 사건이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문재인 후보의 TV 토론)
w3_Q15_3	1843	2.2	1	3	15-3. 각 사건이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이정희 후보의 TV 토론)
w3_Q15_4	1843	2.1	1	3	15-4. 각 사건이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과정과 결과)
w3_Q15_5	1843	2.4	1	3	15-5. 각 사건이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선거마판의 부정선거운동 흑색선전 논란)
w3_Q15_6	1843	2.7	1	3	15-6. 각 사건이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북한의 미사일 발사)
w3_Q15_7	1843	2.6	1	3	15-7. 각 사건이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NLL (북방한계선) 논란)
w3_Q15_8	1843	2.6	1	3	15-8. 각 사건이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후보자의 TV 광고)
w3_Q15_9	1843	2.4	1	3	15-9. 각 사건이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후보자에 대한 TV 찬조연설)
w3_Q15_10	1843	2.0	1	3	15-10. 각 사건이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새누리당의 과거 행적)
w3_Q15_11	1843	2.1	1	3	15-11. 각 사건이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민주통합당의 과거 행적)
w3_Q15_12	1843	2.0	1	3	15-12. 각 사건이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박근혜 후보의 과거 행적)
w3_Q15_13	1843	2.1	1	3	15-13. 각 사건이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문재인 후보의 과거 행적)
w3_QA16_1	930	235.1	99	400	16-1. 의견찬반(국회의원정수) - A형
w3_QA16_2	930	11.2	0	98	16-2. 의견찬반(한미FTA) - A형
w3_QA16_3	930	9.6	0	98	16-3. 의견찬반(복지예산규모) - A형
w3_QA16_4	930	8.8	0	98	16-4. 의견찬반(비정규직 정규직전환) - A형
w3_QA16_5	930	8.2	0	98	16-5. 의견찬반(대복지원) - A형
w3_QA16_6	930	12.4	0	98	16-6. 의견찬반(재벌 순환출자 규제) - A형
w3_QA16_7	930	10.0	0	98	16-7. 의견찬반(기초과학진흥예산 규모) - A형
w3_QA16_8	930	9.2	0	98	16-8. 의견찬반(원자력 발전소 규모) - A형
w3_QA16_9	930	9.5	0	98	16-9. 의견찬반(청년고용할당제) - A형
w3_QB16_1	913	236.5	99	400	16-1. 의견찬반(국회의원정수) - B형
w3_QB16_2	913	10.1	0	98	16-2. 의견찬반(한미FTA) - B형
w3_QB16_3	913	7.9	0	98	16-3. 의견찬반(복지예산규모) - B형
w3_QB16_4	913	8.1	0	98	16-4. 의견찬반(비정규직 정규직전환) - B형
w3_QB16_5	913	8.3	0	98	16-5. 의견찬반(대복지원) - B형
w3_QB16_6	913	10.4	0	98	16-6. 의견찬반(재벌 순환출자 규제) - B형

w3_QB16_7	913	9.1	0	98	16-7. 의견찬반(기초과학진흥예산 규모) - B형
w3_QB16_8	913	9.1	0	98	16-8. 의견찬반(원자력 발전소 규모) - B형
w3_QB16_9	913	8.4	0	98	16-9. 의견찬반(청년고용할당제) - B형
w3_Q17	1843	.	1	5	17. 트위터 사용 빈도
w3_Q17_1	1536	.	1	6	17-1. 트윗 확인 빈도
w3_Q17_2	1536	.	1	5	17-2. 트윗 게재 빈도
w3_Q17_3	1536	.	1	5	17-3. 리트윗 빈도
w3_Q18_1	1843	4.9	0	10	18-1. 본인 이념 평가
w3_Q18_2	1843	3.7	0	10	18-2. 트위터 이용자 이념 평가
w3_Q19_1	1843	4.9	1	8	19-1. 트위터 이용자 중 민주통합당 지지자 비율
w3_Q19_2	1843	3.7	1	8	19-1. 트위터 이용자 중 새누리당 지지자 비율
w3_Q19_3	1843	3.2	1	8	19-1. 트위터 이용자 중 통합진보당 지지자 비율
w3_Q19_4	1843	2.1	1	8	19-1. 트위터 이용자 중 기타정당 지지자 비율
w3_Q19_5	1843	2.7	1	8	19-1. 트위터 이용자 중 무당파 비율
w3_Q20	1843	3.0	1	5	20. 연구진 이념 편향성 평가
w3_Q21	743	3.0	1	5	21. 트위터 기사 선정 편향성 평가
w3_Q22	743	4.1	1	6	22. 기사 편향성 평가
_merge3	2252	2.6	1	3	
_type	1921	.	1	2	설문지 타입 1) Type A, 2) Type B
policy_1	1810	239.3	200	400	의견찬반(국회의원정수)
policy_2	1836	6.5	0	10	의견찬반(한미FTA)
policy_3	1883	6.4	0	10	의견찬반(복지예산규모)
policy_4	1895	7.0	0	10	의견찬반(비정규직 정규직전환)
policy_5	1879	6.3	0	10	의견찬반(대북지원)
policy_6	1746	4.1	0	10	의견찬반(재벌 순환출자 규제)
policy_7	1887	7.4	0	10	의견찬반(기초과학진흥예산 규모)
policy_8	1857	5.5	0	10	의견찬반(원자력 발전소 규모)
policy_9	1878	6.4	0	10	의견찬반(청년고용할당제)
cand1	1717	1.6	1	2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투표할 후보(1차 패널)
cand2	1934	2.0	1	3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투표할 후보(2차 패널)

miss_policy6	1921	.	0	1	
--------------	------	---	---	---	--